제주의 대표 신문
한라일보
발행부수 유료구독률 1위

한라일보

사랑으로 지은 집
사랑으로 가득한 집
부영 사랑으로

漢拏日報 제9765호 제주의 대표 신문 ihalla.com 기사제보 750-2214 | 구독 750-2314 | 광고 750-2828 | 2022년 12월 21일 수요일(음력 11월 28일)

오 도정 첫 조직개편안 쓴소리 '봇물'

도의회 행자위 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심사
노동 전담부서 미설치·정무부지사 업무 전문성 도마

민선 8기 오영훈 제주도정의 첫 조직개편(안)에 대한 쓴소리가 도의회에서 이어졌다. 오영훈 지사의 노동 전담부서 설치 공약이 이번 조직개편안에 포함되지 않은 것과 정무부지사의 소관 부서 확대와 관련한 전문성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강철남)는 20일 제412회 임시회 중 제1차 회의를 열고 제주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했다.

이날 현길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조천읍)은 "(조직개편안과 관련해)그동안의 공약 사업들도 꼼꼼히 챙기고 이전 도정에서 이어가야 될 부분과 새롭게 방향을 틀어야 될 부분들, 새로운 정책을 추가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 충분히 조직에 녹여내는 그러한 조직 개편을 대다수가 기대했다"면서 "하지만 세간의 평을 볼 때 그런 것들을 추구할 수 있는 조직 개편인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철남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제주시을)은 "(조직개편안을)살펴보면 부정적인 측면이 계속 보인다"면서 "15분 도시팀을 만들었는데 균형발전이라든지 마을발전팀 등 전부 그쪽으로 가게 된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느냐"고 꼬집었다.

한권 의원(더불어민주당, 일도1·이도1·건입동)은 이번 도 조직개편안에 노동 전담부서 설치가 포함되지 않은 것과 관련해 "노동전담부서를 이야기 하지 않을 수 없다. 도지사의 의지 문제로 보일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한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을)은 "(정무부지사의 소관 부서 확대와 관련해)1차 산업뿐만 아니라 관광과 문화 업무를 추가로 분장해서 맡기로 했다"며 "관광과 문화 분야가 정무부지사 부서에 포함된 이유가 무엇이냐"며 따졌다.

그러면서 한 의원은 "정무라고 하면 의회와 시민, 그리고 지사와의 관계를 이어주는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문제점은 정무부지사가 만약 바뀌게 된다면 전문성에 대한 문제가 향후 불거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제주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의 회의 끝에 일부 내용을 수정한 뒤 부대의견을 달아 가결됐다.

이와 함께 노동전담 부서 설치 방안 검토, 경제정책과를 경제일자리정책과로 변경 검토 등을 요구했다. 또 마을발전 관련 사무는 주민자치 정책과의 적합성 등을 고려해 현행 유지하도록 조례 내용을 수정했다. 이태윤기자 lty9456@ihalla.com

겨울 비경… 한라산 '만설' 20일 제주시 봉개동 견월악에서 바라 본 한라산 만설이 장관을 이루고 있다. 강희만기자

제주 산간 주말까지 또 눈 온다

기상청, 대설예비특보 발효

제주 산지에 다시 눈이 내릴 것으로 보인다.

제주지방기상청은 20일 오전 11시를 기해 제주 산지에 대설 예비특보를 발효했다. 기상청은 21일 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제주도 산지에 5~10㎝ 눈이 내려 쌓이고, 나머지 지역에는 5~20㎜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해발고도 1500m 이상의 높은 산지에는 짧은 시간에 많은 눈이 내려 쌓일 것이라고 기상청은 밝혔다.

또 기상청은 22일부터 다시 대설특보가 발효돼 성탄절 전날인 24일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또 22일부터 바람이 강하게 불고 기온도 급격히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건강관리에 유의해달라고 기상청은 당부했다.

기상청은 더불어 많은 눈이 내리고 도로가 얼어붙어 이에 대한 사전 대비가 필요하다고 예보했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제주, 세계지질공원 세 번째 인증 성공

오는 2026년까지 지위 유지

제주특별자치도가 유네스코(UNESCO) 세계지질공원 세 번째 재인증에 성공했다.

20일 제주도에 따르면 유네스코는 제주도 세계지질공원에 대해 지난 9월 현장평가, 12월 7~9일 제7차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운영위원회 심사를 거쳐 재인증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에 따라 내년 2월까지 유네스코로부터 제주도 세계지질공원 재인증 확정 공식문서와 함께 인증서가 전달되면 재인증 절차가 마무리되며 2026년까지 지위가 유지된다.

유네스코는 심의에서 제주도 세계지질공원은 2018년 재인증 당시 유네스코에서 제시한 권고사항을 충실히 이행했고, 지난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제9차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제주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점을 높이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네스코는 심의과정에서 생물다양성과 문화유산을 연계한 지질유산 홍보 강화, 교통약자를 포함한 탐방객 편의시설 확충, 지질재해에 대한 교육 강화 등을 새로운 권고사항으로 제시했다.

제주도는 2010년 국내 최초로 세계지질공원 인증을 받았으며 2014년과 2018년 재인증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 재인증이다. 위영석기자

제주, '2022년 여성친화도시' 신규 지정

지난 2012년 첫 지정… 성평등 기반 구축 호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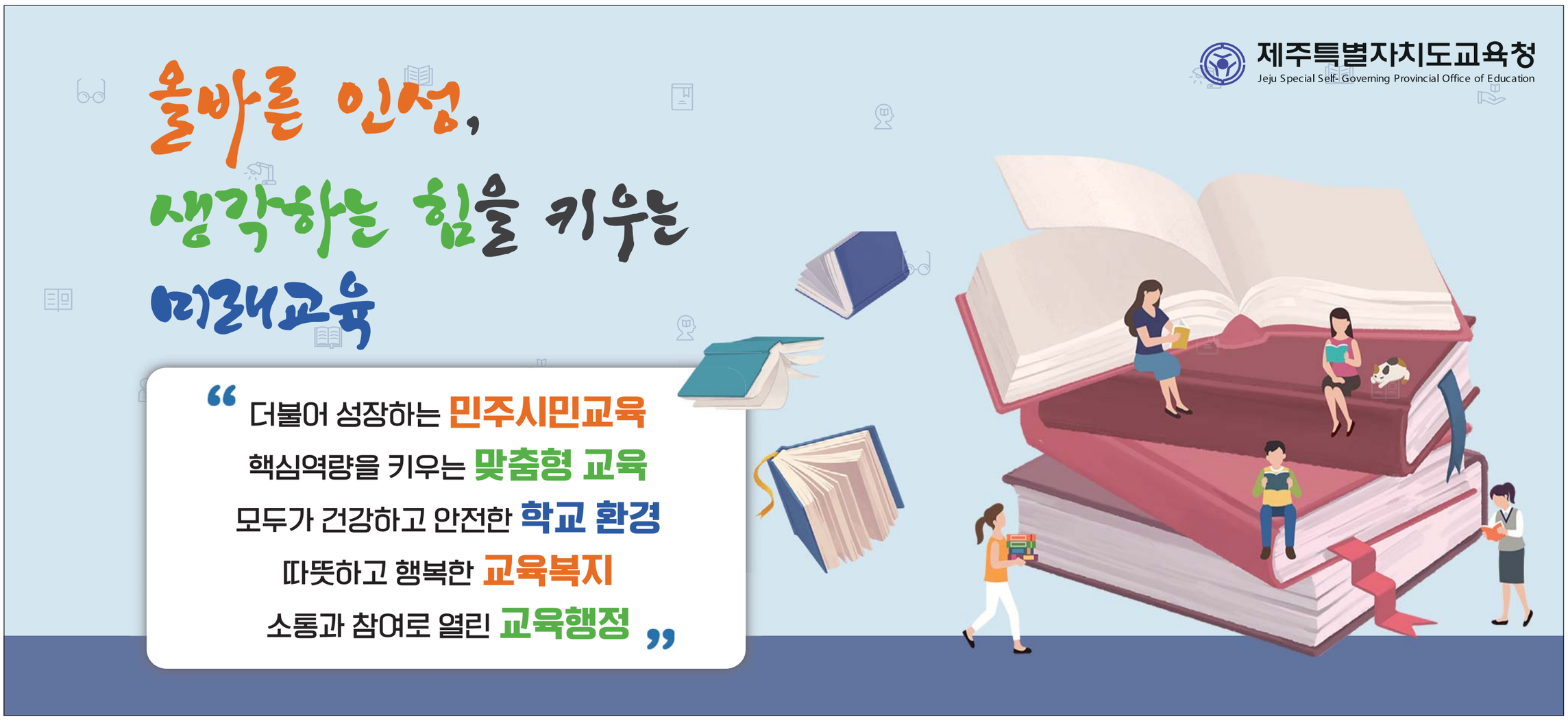
제주특별자치도가 여성가족부가 주관하는 '2022년 여성친화도시'로 신규 지정됐다.

올해 여성친화도시 지정에 전국 40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신청했고 전문가 심사를 거쳐 제주도를 포함한 25개 지자체가 최종 선정됐다.

여성친화도시는 지역정책 추진 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으로, 전국 시·군·구(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포함)를 대상으로 매년 심사를 통해 지정하고 있다.

제주자치도는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지난 2012년에 1단계, 2017년에 2단계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됐으며 변경된 심사기준이 적용되는 올해 다시 신규도시로 지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올해 평가항목은 ▷성평등 추진 기반 구축 ▷여성경제 사회 참여 확대 ▷지역사회 안전 증진 ▷가족친화(돌봄) 환경 조성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역량 강화 등 5개 대표사업이다. 심사 결과 제주도는 5개 평가항목에 대해 심사위원들로부터 고르게 우수 평가를 받았으며, 특히 성평등 추진 기반 구축의 대표사업인 전국 최초 행정부지사 직속 성평등정책관 설치·운영정책이 성주류화 추진체계 구축에 큰 기여를 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제주는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된 이후 지금까지 ▷205개 전 부서(도본청, 행정시, 읍면동)에서 양성평등담당관제 운영 ▷공공기관·언론이 참여하는 민관협력의 성평등협의회 운영 ▷경력단절 및 취약계층 여성공동체 창업 인큐베이팅 지원 ▷여성안심지킴이세트 지원 ▷수눌음 돌봄 공동체 활성화 등 다양한 사업을 펼쳐오고 있다. 고대로기자

제주 코로나19 잠정집계 20일 <17시 기준> 신규 756 누적 35만9161